

- 주요 뉴스: 캐나다·멕시코·중국, 미국의 관세 부과에 무역 보복 예고 단기 충격 불가피 전망
 - 미국 1월 고용보고서 발표, 고용 둔화 예상. 기존 금리 경로 전망은 지속될 가능성
 - 연준 주요 인사, 향후 금리인하가 적절.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완화도 필요
 - 러시아와 인도, BRICS의 독자적인 통화 출범 계획은 부재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트럼프 관세 정책 및 1월 FOMC 결과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덤시크 충격, 트럼프 관세 경계감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ECB 금리인하 및 양호한 기업실적 등으로 1.8%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트럼프 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관련 영향 등을 반영
유로화 가치는 1.3% 하락, 엔화 가치는 0.5%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하락
독일은 ECB 금리인하 및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등으로 11bp 하락

※ 원/달러 환율(주간) 1.5% 상승, 한국 CDS 하락

		1/31일	1/24일	전주말대비			1/31일	1/24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6,040.5	6,101.2	-1.00%	국채 금리 10y	미국	4.54%	4.62%	-8bp
	유럽	539.53	530.07	+1.78%		독일	2.46%	2.57%	-11bp
	중국	휴장	3,252.6	-		영국	4.54%	4.63%	-9bp
	일본	39,572	39,932	-0.90%	CDS 5y	한국	33bp	34bp	-1bp
	한국	2,517.4	2,536.8	-0.77%		중국	56bp	55bp	+1bp
	달러지수	108.37	107.44	+0.86%	위험 지표	EMBI+	370	365	+5bp
환율	유로화	1.0362	1.0497	-1.29%		VIX	16.43	14.85	+10.64%
	엔화	155.19	156.00	+0.52%		WTI유	72.53	74.57	-2.74%
	위안화	휴장	7.2411	-	원자재	구리	427.9	432.1	-0.97%
	원화	1,453.5	1,431.4	-1.52%		금	2,798.4	2,770.6	+1.0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캐나다·멕시코·중국, 미국의 관세 부과에 무역 보복 예고, 단기 충격 불가피 전망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과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 캐나다산 원유의 경우 1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 이번 조치는 2/4일부터 시행되며, 상대국이 맞대응에 나설 경우 관세율 추가 인상의 보복 조치도 가능
-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적인 보복을 천명.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15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30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제품은 2/4일부터, 나머지 12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제품은 21일 이후)하겠다고 발표. 또한 핵심 광물 및 에너지 관련 조치, 비관세 조치도 고려한다고 설명
- 멕시코 역시 세인바움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고 언급.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이유로 지목한 펜타닐 유입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박. 다만 트뤼도 총리와 세인바움 대통령은 모두 관세 부가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며 미국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언급
- 중국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대응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이는 자국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관세 맞대응의 실효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물밑 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타협을 시도할 것이며, 관세 부과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Goldman Sachs). 그러나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인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가 파기되었다는 점에서 단기적 측면의 충격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
- 구체적으로는 캐나다 및 멕시코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산업, 건설, 식품 부문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 다른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수 확보의 일환으로 관세 부과를 선택했고, 관세 조치 확대의 의사도 밝혔음을 고려한다면 향후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전개될 수 있다고 경고
- 한편, 캐나다와 멕시코는 자국 수출에서 미국 의존도가 높기에 향후 상황에 따라 경기침체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 미국 또한 공급 충격 및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분석.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및 달러화 강세 추세가 유효할 것으로 판단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1월 고용보고서 발표, 고용 둔화 예상. 기존 금리 전망은 지속될 가능성

- 1월 고용보고서가 2/7일 공개되는데, 신규 고용건수가 17만건으로 이전(25.6만건) 대비 감소할 전망. 다만 시장에서는 고용이 견조하다는 기존의 평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실업률은 4.1%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관측
- 한편, 전반적인 경제 및 노동시장이 견조하다는 평가가 유지되면서 향후 연준의 금리 경로 역시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 CME의 FedWatch는 금년 2회의 금리인하(6월과 10월, 각 0.25%p)를 예측

■ 연준 주요 인사, 향후 금리인하가 적절.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완화도 필요

-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연율 2%)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에 향후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 특히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 다만 연준의 보우먼 이사는 금리인하에 앞서 인플레이션의 추가 억제를 보기 원한다고 밝혀, 금리인하에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의사를 피력

■ ECB 주요 인사, 당분간 지속적인 금리인하가 적절. 인플레이션 여건도 긍정적

-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드 갈로 위원은 계속해서 제약적 기조의 통화정책을 중립적 기조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여름까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언급.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노트 위원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용부문 등에서 큰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

■ 러시아와 인도, BRICS의 독자적인 통화 출범 계획은 부재

- 러시아와 인도 정부는 BRICS가 독자적인 통화를 출범할 계획은 없다고 발표. 이는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BRICS가 독자적인 통화를 발행할 경우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2/3 현지시각 기준)

- 미국 ISM 제조업 PMI, 애틀랜타 연은 총재 및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발언
- 유로존 1월 소비자물가, 중국 1월 차이신 제조업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트럼프의 무분별한 관세 부과, 자국 경제에 역효과 초래할 소지 - 블룸버그

(Trump's tariff plan is too wide to work)

-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경제에 타격 없이 시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 최근의 콜롬비아 사례처럼 관세가 협상 도구로 유용할 수는 있지만, 최근 트럼프의 관세 부과 결정은 파괴적 행태로 보이며, 경제 및 국가 안보의 목적 달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모습
- 최근 제시된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계획이 시행되면 미국 가구는 연간 1천달러 이상 추가 부담에 직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정책과 동맹국들까지 타격을 주는 무차별적인 조치는 구분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미국 트럼프의 관세 부과,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기업 반발에 직면 - Financial Times

(Trump faces backlash from business as tariffs ignite inflation fears)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3대 교역국에 대한 관세 인상에 나설 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기업 및 공화당 일부 인사의 반발이 확산. 소비재, 석유, 식료품, 자동차 업계는 물가 상승과 공급망 혼란을 경고
- 특히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와 對중국 관세 인상으로 미국이 직면하게 될 피해 규모가 각각 2,000억 달러, 5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PIIE). 일각에서는 이번 관세 인상이 일시적 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화될 경우 근원 PCE 물가의 0.7% 추가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Goldman Sacs)

■ 미국 인플레이션(연율), 3% 진입에도 소비자 불만 해소는 어려울 전망 - WSJ

(Inflation Is Down to 3%. Why That Isn't Good Enough.)

- 작년 말 인플레이션(연율)이 2.9%까지 하락했으나,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부담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 통상적으로 인플레이션이 4%를 넘어서면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는데, 향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이 현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
- 또한 최근 인플레이션 하락의 원인이 경기둔화임을 고려한다면, 향후 임금인상 속도도 악화될 가능성. 만일 충분한 수준의 임금인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3%의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 수 있어 주의 요구

■ 미국 달러화 강세, 트럼프發 무역전쟁으로 기존 추세 계속될 전망 - 블룸버그

(Markets Look to Extend Dollar's Gains as Trump Carries Through Threat to Start Trade War)

-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서 미국 금융시장은 변동성 확대 위험에 노출. 특히 최근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달러화 가치의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증가. 이는 상대국의 무역 보복 등으로 단기적 측면에서 무역 긴장이 강화되고 달러화 강세를 견인할 수 있음을 반영
- 아울러,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 또한 여타국 경제에 부담이 가중될수록 달러화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에 부각. 최근의 지정학적 긴장, 정책 불확실성, 국가별로 상이한 경제회복 경로 등을 고려한다면, 투자자는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Conyers Trust)

■ 미국 은행권, 투자자의 양호한 평가에도 대출은 둔화. 특히 지역은행에 주의 요구 - WSJ

(Wall Street Is Booming, but Banks Are in a Lending Rut)

■ 신흥국 채권 가격, 달러화 강세와 연준 금리인하 전망 후퇴로 하락할 소지 - 블룸버그

(Hopes for EM Debt Dashed as Dollar, Fed Cloud Outlook)

■ 북미 무역전쟁, 자동차식품건설 부문에 타격 예상. 소비자 피해도 우려 - Financial Times

(What will be the impact of a North American trade war?)

■ 미국의 고물가 속 관세 인상,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가능성 - NYT

(High inflation sows debate about new Fed playbook for tariffs)

■ 미국 기업, 중국·유럽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경계할 필요 - WSJ

(What DeepSeek, Russian Sanctions and Guitar Amplifiers Teach Us About Global Compet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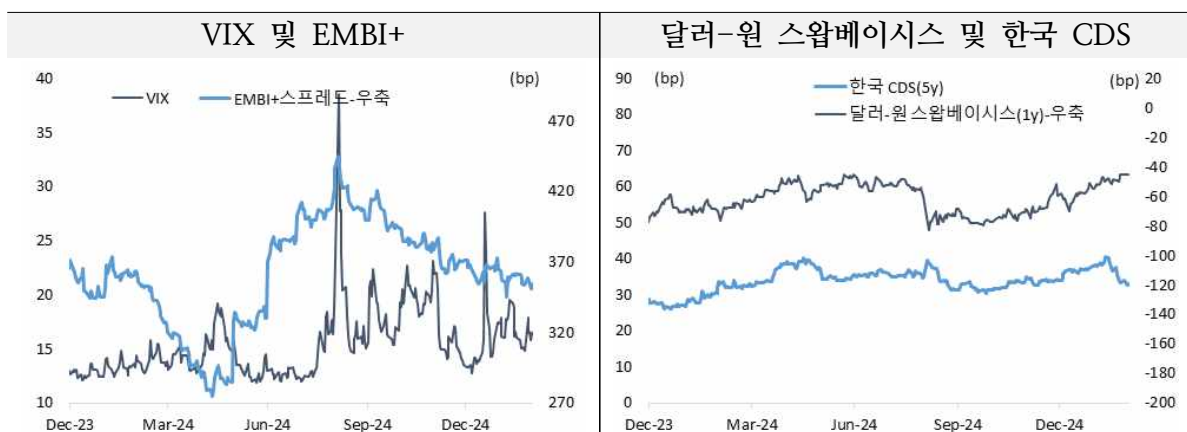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